

역시 ‘강팀에 강한’ 연변팀, 홈장 8连胜 ‘신기록’

— 광동광주표범에 2대0 승리로 제1라운드 패배 설욕

2만명이 넘는 축구팬들이 연변팀의 홈장 8连胜에 환호했다. ‘강팀에 강한 연변팀’답게 연변팀은 이기는 축구를 하며 홈장의 자존심을 또 한번 사수했다.

7월 12일 오후 6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1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광동광주표범팀(이하 ‘광동팀’)을 2대0으로 제압하며 파죽의 홈장 8连胜을 달성했다.

4연속 홈경기의 포문을 여는 이날 경기에서 이기형 감독은 3-4-3 전형을 가동했다. 리달, 서계조, 누네스가 수비선을 담당하고 리룡, 도밍구스, 박세호, 허문광이 중원에 포진되었으며 황진비, 포부스와 김태연이 전방을 책임졌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졌다. 왕봉이 경고 루적으로 결장한 가운데 리달이 선발로 올랐고 박세호가 주장 완장을 착용했다.

이번 경기는 3위와 4위(연변팀)의 대결로 눈길을 끈 한편 연변팀에는 설욕전이였다. 일정 절반을 돌고 홈에서 다시 만난 광동팀을 상대로 연변팀이 제1라운드에서 당했던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 포부스의 추가골로 우위를 선점한 연변팀은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다.



▲ 도밍구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최상의 컨디션으로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시작과 함께 두 팀은 중원에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주도권 쟁탈에 나섰다. 연변팀은 짧고 빠른 패스로 측면에 공을 건네며 상대의 문전으로 파고드는 시도를 이어갔고 상대의 공격이 이루어질 때에는 수비망을 촘촘히 세우며 걸어잡았다.

초반 15분까지 두 팀 모두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경기는 다소 잔잔한 흐름을 이어갔다. 상호 상대의 후방을 뚫을 묘책이 딱히 없었고 중원에서 공 점유율을 높여가는 듯 보였지만 진정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다 26분경 광동팀의 루파가 슈팅으로 연변팀의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심장이 덜컥하는 순간이었다. 광동팀의 기세가 차츰 살아나는 듯 보였고 33분경부터 광동팀은 연변팀 페널티지역에서 연속 프리킥을 얻으며 우리 팀 문전을 흔들었다.

이에 맞서 연변팀 또한 랑 측면을 활용해 문전 침투를 노렸고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한방이 한없이 부족했다.

45분경 광동팀의 슈팅이 연변팀의 골대 옆 그물을 강타하며 또 한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졌고 막판에 연변팀은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상대의 문전을 조준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전반전에 연변팀은 슈팅 2회에 유효 슈팅은 없었던 반면 광동팀은 9회의 슈팅에 유효 슈팅은 2회로 조금 앞섰다.

연변팀은 왕자호가 김태연을 교체하며 후반전을 시작했다. 연변팀은 전반전보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공격을 전개했다.

주거니 받거니 팽팽하던 경기의 흐름이 깨진 건 후반 51분에 연변팀이 프리킥을 얻으면서부터였다.

꽤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은 연변팀은 도밍구스가 공 앞에 섰고 문전으로 길게 크로스를 올렸다. 상대의 수비벽을 뚫어놓은 공은 땅을 한번 째더니 다시 튀겨올랐고 골대 우측을 맞힌 후 그대로 골문 안쪽에 안착했다.

연변팀의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경기장이 끓어올랐고 기선제압에 성공한 연변팀은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연변팀의 공격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며 추가골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솟구쳤다.

원래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법, 69분경 선제골의 주인공인 도밍구스가 중원에서 넓은 시야를 자랑하며 상대의 수비라인을 따돌린 포부스의 위치를 포착했고 또 한번 상대의 뒤공간을 노린 크로스를 높이 띄워주었다.

측면에서 공을 받은 포부스는 광동팀의 문전을 향해 넓다 질주했고 키퍼와의 1대1 찬스를 갈갈이 풀로 연결했다.

포부스와 도밍구스의 협력이 빛을 발하며 연변팀은 2대0으로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

연속적으로 골을 허락하며 궁지에 몰린 광동팀은 동시에 3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들며 반전을 꾀하려 했다. 하지만 물이 오른 연변팀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고 조급한 광동팀은 거친 플레이도 불사했다.

분위기를 완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온 연변팀도 84분경 리세빈으로 허문공을 교체하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슈팅 차수가 앞서고도 골을 내지 못한 광동팀은 반격을 발동했다. 하지만 연변팀이 빗장을 걸어잡고면서 절대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하자 광동팀의 조급심리도 가중되었다.

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지면서

경기후

리달 “기대 저버리지 않고 이룩한 홈 8连胜, 변함없는 응원 감사”

홈 7连胜이라는 기록을 등에 업은 연변팀이 부담이 상당했을 광동광주표범을 상대로 팀의 정신력을 심분 발휘하며 2만여명 현장 축구팬들에게 ‘홈 8连胜’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수비수 리달이 간단한 인터뷰를 받았다.



“오늘 현장에 정말 많은 팬들이 응원했는데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리달은 “이렇게 많은 축구팬들이 우리의 홈경기에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어 정말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도 축구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홈에서 8连胜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남은 홈경기서连胜 계속 이어가겠다”

7월 12일 오후 6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1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광동광주표범팀을 2대0으로 제압하며 홈장 8连胜을 달성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지난 제1라운드 광주에 가서 패



했던 문제점들을 선수들과 분석하였는데 선수들이 그것을 잘 집행해주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 경기를 분석했다.

이어 “오늘 홈에 팬들이 많이 찾아주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와 응원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9连胜, 10连胜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 김파기자

연변팀은 황진비를 빼고 리강을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더불어 연변팀은 두풀이나 앞선 상황에서도 종료 직전까지 시간을 끌거나 수비적으로 지키려 들지 않고 공격을 조직하며 끝까지 달렸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며 경기는 2대

0으로 마무리되었고 연변팀은 기록을 또 한번 갱신하는 홈장 8连胜을 쏘아 올렸다.

‘마귀홈장’의 기세를 남김없이 과시한 연변팀은 7월 19일에 청도홍사팀과 4연속 홈장의 두번째 경기를 이어간다.

/ 김가혜 김파 기자

【 포토 포커스 】

‘즐거움 주는 축구’, 그리고 팬들이 돌아오고 있다!



감독진의 전술이 통했고 선수들의 약삭빠른 전술 집행력이 빛을 발하며 연변팀은 홈장 8连胜은 물론 광동광주표범에 설욕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축구팬들은 오래도록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자리에 남아 선수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승리

의 기분을 길게 만끽했다.

더불어 이날 2만명이 넘는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관중수가 2만명대를 넘었는데 갑급리그 제16라운드 통계에 따르면 연변팀은 2만 876명의 관중 기록으로 룽닝철인의 2만 5,105 명에 이어 ‘홈 관중수 2위’에 올랐다.

원팀·전술·팬심 ‘3박자’를 갖춘 연변팀의连胜에 대한 날개짓이 시작되면서 팬들도 경기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축구팬들은 말한다. “계속하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축구를 부탁드립니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란

1,500 명이 뛰었다! 중국·길림 제2회 변경마라톤 훈춘시

13일, ‘심무계 보변강(心无界 步边疆)’ 성장컵 중국·길림 제2회 변경마라톤 계열 경기(훈춘)가 훈춘시 양포만족향에서 출발을 알렸다. 국내외에서 온 1,500명 참가자들은 달리는 과정에 훈춘의 자연풍광, 생태 매력과 변경 풍경을 체험하면서 훈춘 특색의 마라톤 경기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체육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길림체육학

원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 훈춘시정부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체육국 룽상자전계운동관리중심, 길림성체육협회, 훈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체육국), 양포만족향정부에서 협조한 중국륙상협회 인증 C류 대회이다.

경기는 전 코스 마라톤(42.195킬로미터), 하프마라톤(21.0975킬로미터), 미니건강달리기(5킬로미터) 등 종목을 설치했다. 경기 코스는 훈춘

의 자연풍광과 문화관광자원을 교묘하게 융합해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는 동시에 향촌의 풍토인정 및 자연풍광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편 후룡강성 활빈사에서 온 러빈은 마라톤 경기에 여러차례 출전한 적 있는 ‘베테랑’이다. 그는 훈춘의 서늘한 날씨와 수려한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 길림일보

